



2022년 5월 첫째주일

“성령의 열매(II)”

갈라디아서 5:22-23

찬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

1. 성령의 열매중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6:9)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원어로 믿음,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오직 부르신 그분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심은 언제, 어느 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거칠고 사나운 옛 모습이 남아 있나요?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5.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지나침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무엇을 절제하여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